

대전/충청/강원

“재해는 미리 막는다”...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장마철 대비 ‘총력전’

입력 2025-06-17 17:46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가 배수장 성능을 대폭 개선해 폭우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은 논산 탑정저수지 배수장 주변 준설 작업 현장.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농촌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배수로 준설과 배수장 설비 개선 등 농업 인프라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도내 13개 지사의 배수로, 수문, 배수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펌프·제진기 재해복구를 완료했다. 특히 침적토와 이물질로 유수가 원활하지 못했던 구간을 집중 정비해 홍수 배제 능력을 끌어올렸다.

이번 작업으로 총 549km에 달하는 배수로가 정비되며, 펌프 12개소와 제진기 24개소를 교체해 집중호우 시 빠른 배수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농경지 침수와 농로 유실 같은 2차 피해 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수 본부장은 “재해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재해취약지역 순찰 강화 △농업용 저수지 및 수리시설 정기점검 △주민·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훈련도 병행하며 입체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